

■ 이종철 삼성서울병원 원장

이종철 원장은 두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 위암과 만성 소화기질환 분야에서 국내 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가가 그 하나이고, 병원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와 고객서비스로 개혁시킨 실질적 경험과 실천력을 보여준 CEO라는 명함이 그것이다.

위장 질환분야의 명의

위암은 우리나라 암 유병률과 암 사망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위암은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세균의 감염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위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와 같이 위암이 많은 일본의 경우 1960년경부터 위암에 대한 집단 검진을 실시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1990년 영국에서 전세계 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집단 검진을 통해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종철 원장은 1982년 일본대학 의학부 스루가 다이병원 내시경실에서 연수하고, 1984년 일본 국립암센터 내시경실 연구원, 그리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로체스터대학부설 아이작고든 소화기센터에서의 연구원 활동을 통해 선진 위암 조기검진방법을 습득한 후 귀국하여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만성소화기 질환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의학계에선 인정하고 있다. 80년대에 만성소화기질환에 도전하여 국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위운동장애 진단에 성공함으로써 '만성소화기 질환 치료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6년 연구원으로 생활하던 미국의 로체스터대학 아이작고든 소화기센터(뉴욕주 소재)에서는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막연한 문제 제기에 그쳤던, 치료가 안되는 소화불량의 원인들에 대해 새로운 검사방법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소화불량하면 으레 내시경검사에 의존하던 국내 사정과는 달리 당시 고든센터는 위장의 전기전도 검사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위장 운동의 검사 등이 보편화됨으로써 과거 원인을 몰라 고생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온 이 원장은 1988년 귀국하여 위 전기전도진단 기계를 도입하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만성소화불량의 진단법 연구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여의 연구결과, 드디어 동위원소가 주입된 닭의 간을 이용하여 위장운동을 검사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이 원장이 사들인 닭은 무려 1천500여 마리, 연구에 동원된 환자 수만도 1천여명이나 됐다.

그 결과 이 원장은 위내시경과 초음파, 혈액검사 등으로도 원인을 찾지 못하던 환자 306명을 가려내 동위원소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가운데 170여명을 위 운동장애로 확진할 수 있었다. 또 위 전기전도검사를 통해 위 운동장애가 아닌 환자 가운데 46명을 위장 전기전도계 이상자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소화관운동학회 조직위원장으로

2007년 국제학술대회 유치

오는 9월 2일엔 위식도역류,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변비·설사 등 소화관운동질환과 관련한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하는 제21차 세계소화관운동학회 학술대회(The 21st ISNM: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가 우리나라 제주에서 열린다.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또한 이종철 원장의 숨은 노력이 컸다.

'소화기운동질환의 올림피아드'라고 불리는 세계소화관운동학회는 지난 40년동안 미국, 유럽을

돌며 격년제로 개최돼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1991년 일본 고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이같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이 유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 세계 30여개국에서 외국학자 400명과 국내관계자 300명 등 모두 70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세계적인 관련 제약 및 의료용품업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에선 식생활의 서구화와 가정·직장·사회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변비·설사 등 소화관운동질환의 최신 의학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병원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한 선도자적 CEO

이종철 원장은 이렇듯 의학자로서의 면모와 함께 병원 경영 분야에서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경영 분야에서도 그 실력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지난 1996년 9월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을 맡으며 처음 경영일선에 나선 이종철 원장은 많은 의사가 병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진료 각과 교수진 등 주요 의료진이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영목표에 대한 빠른 이해와 불필요한 부서간 마찰을 줄여 병원경영의 질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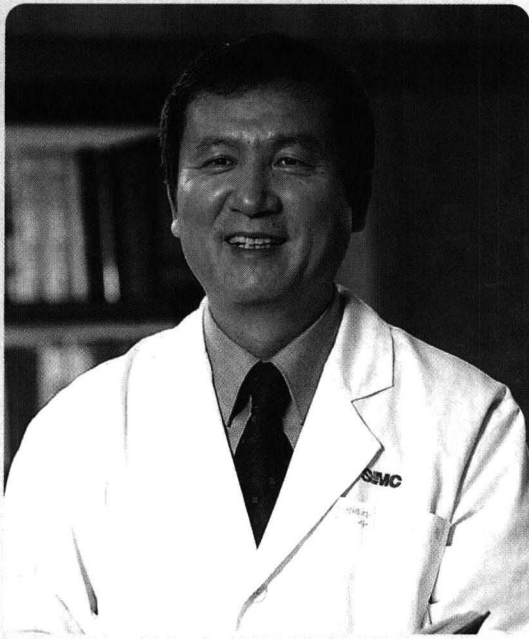
또 압 정복과 장기이식 등 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정립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효율적 지원을 통해 진료 및 연구성과의 향상을 가능케 함에 따라 불과 개원 6년만에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전체 연구기관 중 SCI 연구논문 피인용 1위 기관이 되는 비약적 발전의 토대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996년 12월 기획부원장에 승진 임명된 뒤에는 병원 기획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친절, 서비스 강화, 주인의식 고취' 등 신경영 운동을 추진하여 직원 의식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이러 노력이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 1996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외부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줄곧 선호도 1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는 질 높은 진료를, 직원들에게는 서비스 향상 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독려했기 때문이다.

또 1997년부터 전국 주요 중견병원들과 협력병원 관계를 체결, 지역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 의료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한 '열린 병원' 정책 역시 이 원장의 추진력이 큰 힘이 되어 왔다.

IMF 위기가 닥친 1998년 12월 진료부원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해 의료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과 경영 환경 개선, 그리고 위암을 비롯한 소화기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전력

2000년 12월 삼성서울병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종철 원장이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은 원내 임직원간의 단결과 화합이었다. IMF 이후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 원장은 원내 체육대회,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원내 임직원의 단결과 화합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외부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활동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왔다. 또 2003년에는 2010년 아시아 선도병원을 목표로 하는 “비전2010”을 수립하여 아시아 최고의 병원을 위해 진군하고 있고, 2004년 8월에는 700병

상 규모의 삼성암센터를 아시아 최고수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2007년 10월 완공예정인 삼성암센터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이 원장은 이제 안으로는 내부직원에게, 밖으로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의미의 CEO로 거듭났고, 마침내 일반 기업 CEO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2007년도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 원장은 이후로도 세계 초일류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MD앤더슨과는 암분야에서, 시더스 사이나이와는 뇌신경계 및 순환기계 분야에서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그는 이들 3대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앞으로 세계적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20세기 말 한국 의료계의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킨데 앞장선 이종철 원장, 21세기를 맞아 세계적 의학수준을 갖춘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 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대담 김성환) **KHA**